

『東輿備攷』의 濟州 地名 研究

오창명*

- I. 서론
- II. 『東輿備攷』와 제주 지명
- III. 제주 지명 분석
- IV. 결론

【요 약】

이 연구는 17세기 후반의 지도로 추정되는 『東輿備攷』의 ‘제주도 지도’ 부분의 제주 지명을 정리하고, 그 지명을 해독하여 국어학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東輿備攷』는 연구자에 따라서 『新增東國輿地勝覽』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기도 하고, 그 후의 지지 내용을 보충하여 반영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東輿備攷』의 제주 지명은 170여 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지명 표기 위치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당시 상황을 사실적으로 반영한 지도라고 하기는 어렵다. 곧 당시까지 전하는 지지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추상적으로 그린 지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제주 지명’ 표기와 내용을 비교

* 제주대 국어상답소 연구원

해 보면, 지명 표기의 경우 『新增東國輿地勝覽』의 표기와 같은 것이 많으나, 일부 지명 표기와 내용은 다른 경우도 있다. 그래서 『東輿備攷』는 『新增東國輿地勝覽』의 내용을 전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17세기 지지인 이원진의 『耽羅志』와 유형원의 『東國輿地誌』(현종 때) 등의 지명 표기와 비교해도 많이 다르다.

곧 『東輿備攷』는 17세기 후반에 작성한 지도로 보이지만, 『東輿備攷』의 제주 지명은 당시 지명 표기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적어도 16세기 지명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 지도에는 각각 ‘火等旨’와 ‘酉只浦’, ‘蒲岳’, ‘道衣灘浦’ 등으로 표기한 지명이 이원진 『탐라지』(1653)에는 ‘不等之川’과 ‘雞浦’, ‘紫蒲岳’, ‘敦義嶼浦’ 등으로 표기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東輿備攷』의 ‘제주도 지도’의 지명 표기는 17세기의 표기가 아니라, 16세기의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표기를 거의 그대로 반영하여 17세기 후반에 추상적으로 그린 지도 위에 기입한 것으로 추정한다.

『東輿備攷』에는 170여 개의 제주 지명을 한자차용표기로 표기하였다. 제주 지명의 후부 요소의 경우, ‘○○오름’은 ‘○○岳’으로, ‘○○뫼>○○메마’는 ‘○○山’으로, ‘○○개’는 ‘○○浦’로, ‘○○내’는 ‘○○川’으로, ‘○○못’은 ‘○○池’로, ‘○○소’는 ‘○○淵’ 등으로 표기하였다. 지명의 전부 요소의 경우, ‘곶론○○’은 ‘并○’으로, ‘물○○>물○○’은 ‘水○○’, ‘바곶지○○’은 ‘把古○’ 등으로 표기하였다.

I. 서론

이 글은 17세기 후반 지도로 추정하고 있는 『東輿備攷』의 ‘濟州

島 부분' 지명 목록을 정리하고 각 지명을 해독하여 그 음상과 의미가 무엇인가를 구명하여 연구한 것이다.

제주 지명을 자세히 기록한 옛 지도는 18세기 지도와 19세기 지도가 몇 개 있는 것으로 이미 알려졌다. 이찬(1979)에 의해서는 18세기 지도인 이형상 『탐라순력도』¹⁾와 1709년의 『耽羅地圖并書』²⁾, 18세기의 것으로 추정하는 「耽羅地圖」³⁾ 등이 소개되었다. 또한 이상태(1996)와 양보경(2001) 등에 의해서도 제주도 옛 지도가 소개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17세기 후반 지도로 추정된 『東輿備攷』 속의 '제주도 지도(가칭)'가 소개되고⁴⁾, 17세기 말 지도로 추정되는 목판본 「탐라도」(가칭)가 확인되어 소개되면서⁵⁾, 제주 옛 지도와 옛 지명 연구에 새 전기를 마련하였다. 전자는 이상태(1998;1999;2002) 등을 통해서 17세기 말 지도로 확인되었고, 후자는 권영철(1979), 오상학(2000) 등을 통해서 소개되고, 오창명(2006)을 통해서 전모가 소개되었다. 후자의 지명에 대해서는 오창명이 연구발표를 하였는데, 전자의 지명에 대해서는 연구발표를 한 적이 없었다.

- 1) 『耽羅巡歷圖』(1703)는 이형상이 제주목사로 있을 때 제주도를 동·남·서·북으로 한 달간에 걸쳐 순력한 뒤, 그간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28쪽의 그림에 담아낸, 총 41면과 2면의 서문으로 된 도첩(圖帖)이다. 이 도첩의 제1면에 「漢拏壯圖」(1702)이 들어있는데, 이찬은 이 「한라장축」을 「耽羅地圖」로 소개하였다. 이 도면들은 김남길이 그리고 이형상이 설명을 삽입하여 함께 제작한 것이다.
- 2) 이 지도는 1709년(숙종 35)에 편찬된 제주도 옛 지도이다. 제작 연대가 확실하고, 제주도 단독지도로서 축척이 크고 내용이 상세한 목판본 지도이다. 제주도청에 보관된 '并書'와 제주도민속자연사박물관에 보관된 「탐라지도」가 1991년 6월 4일에 제주도유형문화재 제13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 지도와 같은 판본이 국립민속박물관과 규장각 등에도 보관되어 있다.
- 3) 이 지도는 題名이 「耽羅地圖」로 되어 있는데, 이찬이 「耽羅座標圖」로 소개하면서, 「탐라좌표도」로 많이 알려졌다. 개인 소장으로 소개한 뒤, 지금 누가 소장하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다.
- 4) 『東輿備攷』, 경북대학교출판부, 1998.
- 5) 오창명(2006), “「耽羅圖」와 지명”, 『탐라문화』 28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II. 『東輿備考』와 제주 지명

『東輿備考』는 개인 소장본(釋 圓眞 소장)을 경북대학교가 발굴하여 1988년에 영인 간행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東輿備考』는 32種 60面の 지도를 한 책에 수록한 지도집으로, 가로가 33~68cm이고, 세로는 37~42cm라고 한다. 이상태(1998)는 당시 이 지도집의 해제를 쓰면서, 17세기 후반인 숙종 8년(1682)경에 제작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남권희(1998)는 18세기 초의 것으로 추정하였다.

『東輿備考』에 관한 연구는 이상태(1998, 1999, 2002)와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이 발간한 『영남학』 2호(2002)의 “『東輿備考』의 종합적 연구”를 참고할 수 있다.

이상태(1998)는 『東國輿地勝覽』에서 ‘東’과 ‘輿’를 취하고, 『동국여지승람』을 이용하는 데 참고가 되는 지도라는 데서 ‘備考’를 조합하여 『東輿備考』라고 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정재영, 2002)도 있다.

『東輿備考』의 35면에 ‘제주도 지도’가 있다.⁶⁾ 이 지도의 ‘제주도’ 부분 내용을 검토하면, 『新增東國輿地勝覽』에 반영된 ‘別防城’과 ‘定遠樓’, ‘友蓮堂’, ‘矢射石’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 보아 이 지도의 제주도 부분 내용은 『東國輿地勝覽』이 아닌 『新增東國輿地勝覽』의 내용을 참고하여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심지어는 『新增東國輿地勝覽』(권38, 정의현, 산천)에 “三每陽岳[在縣西三十里……]”라고 하여, 거리를 잘못 기재하였는데, 『東輿備考』에서도 “三每陽岳[旣 三十]”이라고 잘못 기재하였다. 이 내용에 보이는 ‘三十里’는 『新增東國輿地勝覽』(권38, 정의현, 산천)에 “藻淵[在縣西七十里……]”을 고려하면 ‘七十里’의 잘못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藻

6) 이 35면 지도의 이름은 없다. 이상태(1998)에서는 ‘濟州道圖’라는 용어를 썼는데, 이 글에서는 ‘濟州島 地圖’라고 지칭한다.

淵[물망소]’은 ‘三每陽岳’ 분화구에 있는 소를 이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부 지명의 경우는 『新增東國輿地勝覽』의 내용과 다른 것도 있다. 가령 『新增東國輿地勝覽』(권38, 대정현)에는 “加內大川 加內小川[俱在縣東五十餘里] / 木橋[在大小加內川]”이라고 하였으나, 『東輿備攷』에는 “加內大川橋[大 五十三] 加內小川橋[大 四十八]”이라고 하였다. 『新增東國輿地勝覽』(권38, 대정현, 산천)에는 “松岳山[在縣南十五里……山巔有池 徑可百餘步]”라고 하였는데, 『東輿備攷』에는 “松岳山[十五] 大池[百二十步]”라고 하였다. 또 『新增東國輿地勝覽』(권38)의 표기와 『東輿備攷』의 표기를 비교하면, ‘今勿德岳’을 ‘金勿德岳’으로, ‘閑佐甫山’을 ‘閑坐甫山’으로, ‘別刀岳’을 ‘別刀山’으로, ‘火等枝’를 ‘火等旨’로, ‘火等枝川’을 ‘火等川’으로, ‘月羅山岳’을 ‘月哭山’으로, ‘湫水’를 ‘竜湫水’ 등으로 표기하여, 글자 한자를 바꾸거나 한 글자를 누락하거나 한 글자를 덧붙이거나 한 표기도 보인다. 섬 이름의 경우도 대부분 ‘島’를 생략하여 표기하였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東輿備攷』의 ‘제주도 지도’는 『新增東國輿地勝覽』이 아닌 다른 地誌의 내용을 반영한 지도라고 하기 어려워 보인다. 『東輿備攷』의 ‘제주도 지도’ 내용을 검토하면, 당시 사실적인 내용을 반영한 지도라고 할 수 없다. 곧 기존 地誌 내용을 보면서 추상하여 그린 지도라고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제주도 지도’의 지명 표기 위치를 검토해 보면 알 수 있다. 『東輿備攷』를 보면, ‘朝天館’ 아래쪽에 ‘矢射石’을 표기하고, 그 아래쪽에 ‘제주목’ 관아를 표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한라산 정상 바로 위쪽에 ‘제주목’에 딸린 관아 건물인 ‘觀德亭, 弘化閣, 友蓮堂, 定遠樓’ 등을 표기하였다. 심지어는 ‘廣壤堂’을 한라산 정상 동남쪽에 표기하고, ‘대정현’ 관아 아래쪽에 있어야 할 ‘把古岳’을 ‘대정현’ 관아 북서쪽에 표기하였다. ‘제주목’ 지역에 있어야 할 ‘曉別岳’도 대정현 지역에 표기하고, 한라산 중턱에 있어야 할 ‘城板岳’도 한라산 남쪽

에 표기하였을 뿐만 아니라 ‘月罌山’ 아래쪽에 표기하였다. 당시 정의현 서쪽에 있었던 ‘三每陽岳’은 ‘狐兒嶺’ 서쪽에 표기하여야 하는데, 이 지도에는 ‘狐兒嶺’ 동쪽에 표기하였다. 서귀포 앞바다에 있는 섬은 실제 ‘(東)知旼→森島→衣脫→凡島(西)’ 순서로 있는데, 지도에는 ‘(東)凡島→衣脫→森島→知旼(西)’ 순서로 되어 있다. 또 이 지도의 ‘只末山’은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 정의현, 산천)에 ‘只末山’으로 표기하였다. 그런데 이원진 『탐라지』와 유형원 『동국여지』에는 ‘指尾山’으로 표기하였다. 이상의 내용을 볼 때, 『東輿備攷』의 ‘제주도 지도’는 기존 地誌 내용을 반영하기는 하였지만, 지도에서는 당시 지명의 위치를 사실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이한 것은 제주목 지명을 대정현 지역에 표시·표기하거나 정의현 지명을 제주목 지역에 표시·표기하였을 때는 ‘長兀岳[濟 三十]’, ‘破磨只岳[州 四十五]’, ‘法華寺[大 四十五]’, ‘雲之岳[旌 三十二]’와 같이 ‘濟’(濟州牧의 濟), ‘州’(濟州牧의 州), ‘大’(大靜縣의 大), ‘旌’(旌義縣의 旌: *지도에는 旌의 오른쪽 부분으로만 표기함.)라고 표기하여 각각의 지명이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 지역의 지명임을 표시하였다.

『新增東國輿地勝覽』의 ‘제주도’ 내용과 『東輿備攷』의 ‘제주도 지도’ 내용 중 水精寺, 萬壽寺 등의 절 이름과 觀德亭, 弘化閣 등의 건물 이름, 東齋, 西齋 등의 齋 이름, 金寧精舍, 月溪精舍 등의 精舍 등을 제외하고, 가능한 한 자연지명만 비교하여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참고로 17세기 제주 지명 표기를 비교해 보기 위하여 이원진 『탐라지』(1653)와 17세기 말 『탐라도』의 지명 표기도 제시하였다.

『新增東國輿地勝覽』 (권38, 제주목)	『東輿備攷』의 ‘제주도 지도’	이원진 『탐라지』(1653)	17세기 말 『탐라도』
加內大川, 木橋[在大 小加內川]	加內大川橋	大加來川, 加來川	*
加內小川, 木橋[在大 小加內川]	加內小川橋	小加來川, 加來川	*
加波島	加波	盖波島	盖波島
葛岳	葛岳(제주목)	葛岳	*
甘山川, 甘山橋	甘山川橋	紺山川, 紺山橋	*
甘甫旨	甘甫旨	*	*
箇乃池	箇乃池	迦藍池	*
介老川	介老川	介路川	*
巾入浦	巾一浦	健入浦	健入浦
孤根山	孤根山	孤根山	孤根山
高內岳	高內岳	高內岳	高內岳
古道水	古道水	*	*
古齡田	高齡田	古齡田	*
郭支岳	郭支岳	郭支岳	郭岳
貫島	貫島	貫島	兄弟島
廣分坪	廣分坪	廣分坪	*
廣壤堂	廣壤堂	廣壤堂	*
屈山, 堀山	屈山	蠓山	蠓山
窟庵	窟岩	窟菴	*
歸德浦	歸德浦	歸德浦	啟德浦
金寧浦	金寧浦	金寧浦	迎登浦
今勿岳	今勿岳	黑岳	黑岳
今勿德岳	金勿德岳	感恩德岳	感恩岳
多郎時岳	多郎時岳	大朗秀岳	大朗秀岳
達山	達山	達山	達山
大橋藪	大橋藪	木橋藪	*
大藪	大藪	大藪	*
大池	大池1(정의현)	大池	*
大川, 大川橋	大川橋	大川, 大川橋	*

大村	大村	大村	*
大火脫島	大火脫	大化奪島	大化奪
都近川, 水精川, 朝貢川	都近川	朝貢川, 水精川, 都近川	*
道道里岳	道道里岳	道圓岳	道圓岳
道衣灘浦	道衣灘浦	敦義嶼浦	別防浦
道道里浦	都浦	道圓浦	道圓浦
禿達岳	禿達岳	禿達岳	*
耽羅, 毛羅, 耽毛羅, 東瀛洲, 濟州	東瀛州, 耽罽, 毛 罽, 耽毛罽, 濟州	耽羅, 毛羅, 耽牟 羅, 東瀛洲, 濟州	*
豆落島	豆落	斗落島	*
等於里池	等於里池	背池	*
麼羅島	麼罽	摩蘿島	摩蘿島
末山	末山	斗山	斗山
毛洞	毛洞	毛洞	*
毛瑟浦	毛瑟浦	摹瑟浦	摹瑟浦
毛興穴	毛興穴	三姓穴, 毛興穴	牟興穴
文士乃岳	文士乃岳	*	*
方巖	方岩	方巖	*
盃令浦	盃令浦	排齡浦	排齡浦
凡島	凡島	虎島	虎島
別刀岳	別刀山	禾北岳	*
別刀川, 別刀橋	別刀川橋	禾北川, 禾北橋	*
別防城	別防城	別防城	別防所
屏門川	屏門川	屏門川	*
竝岳	并岳	竝岳	竝岳
北浦	北浦	北浦	北浦
飛揚島	飛揚島	飛揚島	飛揚島
沙羅岳	沙罽岳	紗羅岳	紗羅岳
斜鼠島	斜鼠	麝鼠島	斜鼠島
斜餘鼠島	斜餘鼠	東餘鼠島	東餘鼠島
山房山, 窟庵	山房山, 窟岩	山房, 窟菴	山房

山底川	山底川	山底川	*
森島	森島	森島	森島
三每陽岳, 大池, 藻淵	三每陽岳, 大池	三梅陽岳	三梅陽岳
塞達川, 塞達橋	塞達川橋	塞達川, 塞達橋	*
西林浦	西林浦	西林浦	西林浦
西山岳	西山岳	西山	西山
石積	石積	積石坡	*
*	成佛庵	成佛岳	成佛岳
城山	城山	城山	城山
城板岳	城板岳	城板岳	*
小火脫島	小火脫	小化奪島	小化奪
松溪川	松溪川	松溪川	*
松岳山, 貯別利, 池	松岳山, 大池	松岳, 佇別里	松岳山, 貯星岳
愁德島	愁德	雄原島	*
水望	水望岳	水頂岳	*
水山	水山(정의현)	首山	首山
水山岳	水山岳(제주목)	水山	水山
水山坪	水山坪	首山坪	*
水岳, 龍湫	水岳, 竜湫	水岳, 龍湫	*
矢射石	矢射石	三射石	*
新村縣	新村県	新村縣	*
安佐岳	安佐山	安坐岳	屏花岳
涯月縣	涯月城, 涯月浦, 涯月県	涯月城, 涯月浦, 涯月縣	涯月所, 涯月浦
於等浦	於等浦	魚登浦	於等浦
餘叱結川	餘叱結川	餘結川	*
瀛洲山, 瀛旨	瀛洲山	瀛洲山	瀛洲山
靈泉館, 靈泉川	灵泉館, 灵泉川	靈泉岳, 靈泉川	灵泉岳
楸水	竜湫水	*	*
猊來浦, 猊來縣	猊來浦, 猊來県	猊來浦	*
往洞	往洞	往洞	*
牛島	牛島	牛島	牛島

雲之岳	雲之岳	雲之岳	*
元堂岳	元堂岳	元堂岳	元堂岳
月羅山岳	月罗山	懸蘿山	*
西只浦	西只浦	雞浦	*
鷹巖山	鷹岩山	鷹巖岳	*
衣脫島	衣脫	*	衣脫島
笠山岳	笠山岳	笠山	笠山
獐岳	獐岳	獐岳	鹿山
長兀岳	長兀岳	長兀岳	*
財巖	財岩	財巖	*
猪岳	猪岳	猪岳	*
朝天館, 朝天館浦	朝天館	朝天浦	館浦
竹島	竹島	竹島	竹島
知道島	知道	知道島	*
只末山	只末山	指尾山	指尾山
知歸島	知故	知歸島	知歸島
地稅旨	地稅旨	地稅旨	*
遮歸岳, 遮歸浦	遮故岳, 遮故浦	遮歸岳, 遮歸浦	堂山
清路島	清路	清路島	*
草蘭島	草蘭	草生島	草蘭島
楸子島, 身島	楸子島, 身島	楸子島	楸子島
兔山	兔山	兔山	兔山
兔山縣	兔山県	兔山縣	*
把古山	把古岳	簞山	簞山
破麼只岳	破磨只岳	*	夜漠岳
蒲岳	蒲岳	紫蒲岳	紫蒲岳
皮文岳	皮文岳	*	皮文岳
漢拏山, 頭無岳, 圓山	漢拏山, 頭無岳, 圓山	漢拏山, 頭無岳, 圓山, 釜岳	*
閑佐甫山	閑坐甫山	閑坐岳	*
咸德浦, 咸德縣	咸德浦, 咸德県	咸德浦, 咸德縣	咸德浦
缸波頭古城	缸波頭古城	缸坡城	三別抄所築 土城

狐兒縣, 狐兒村	狐兒縣	*	*
狐村川, 狐村橋	狐村川橋	狐村橋, 狐村川	*
洪爐川, 洪爐縣	洪爐川, 洪爐縣	洪爐川, 洪爐縣	*
火等枝川	火等旨	不等之川	*
曉別岳	曉別岳	曉星岳	曉星岳

『東輿備攷』의 ‘제주도 지도’에서,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구역 안의 항목은 170여 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중에 達魯花赤府[다루가치부]·軍民撫使府 등의 관청과 觀德亭·定遠樓·淸風樓 등의 누각, 尊者庵 등의 암자, 妙蓮寺·文殊寺 등의 사찰, 古長城 등의 城, 石橋·石梁 등의 다리, 矢射石, 七星圖 등은 사실 땅 이름[地名]이라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들 중 일부는 나중에 땅 이름으로 쓰이기도 한다. 곧 江臨寺, 小林寺, 水精寺, 靈泉寺 등의 경우는 ‘江臨浦’, ‘小林果園’, ‘水淨村’, ‘靈泉岳’ 등에 반영되어 쓰이고, ‘尊者庵’도 ‘尊者岳’에 반영되어 지명의 전부 요소로 나타나기 때문에 지명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 ‘七星圖’도 오늘날 ‘七星路’에 반영되어 있다. ‘古城’의 경우는 단순히 ‘옛 성’ 또는 ‘목은 성’을 뜻하는 말로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古城村·古城里’와 같이 지명으로 바뀌었다.

한편 지도 표기 과정의 誤記로 보이는 것이 몇 개 보인다. ‘軍民按撫使府’를 ‘軍民撫使府’로 쓴 것, ‘巾入浦’를 ‘巾一浦’로 쓴 것 등이 그것이다. 제주목 서쪽의 ‘明月縣’을 비롯하여 그 일대의 지명은 전혀 표기하지 않은 것도 특징이다.

III. 제주 지명 분석

『東輿備攷』에 보이는 지명 목록은 크게 자연물에 붙인 자연지명

과 관아·행정명 따위로 쓰인 법제지명(이영택, 1988) 등으로 나눌 수가 있다. 자연지명은 다시 ‘오름[岳]·메[山], 개[浦], 내[川], 섬[島], 못[池]·소[湫], 골·굴[洞], 굴[穴]’ 등으로 나누고, 법제지명은 ‘현(縣), 성(城), 관(館), 당(堂)’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법제지명은 ‘○○縣’(涯月縣, 威德縣 등), ‘○○城(別防城)’, ‘○○館(朝天館), ‘○○堂(廣壤堂)’ 등으로 쓰였는데, 지명 전부 요소인 ‘○○’이 기존 지명에서 따온 것이 대부분이고, 새로 인위적으로 만든 것도 있다. 인위적으로 만든 지명 전부요소는 나중에 지명으로 굳어진다. 법제지명의 전부요소는 대부분 자연지명에서 따온 것이다. 그러므로 제주 지명 분석은 주로 자연지명에 관해서 논의하도록 한다.

3.1 오름[岳]·뫼[山]

‘오름[岳]’과 ‘뫼>메·미(山)’, ‘산(山)’, ‘믄>믄[聾]’ 등은 48개 항목을 확인할 수 있지만, ‘漢拏山 一云頭無岳 一云圓山’이라 한 것을 한 항목으로 계산하면 그 수는 줄어들게 된다. 제주에서 ‘○○오름’으로 부르는 것은 주로 ‘○○岳’으로 표기하고⁷⁾, ‘○뫼>○메·○미’로 부르는 것은 ‘○山’으로 표기하였다. 곧 ‘沙湫岳’은 ‘사라오름’을, ‘屈山’은 ‘굴뫼>굴메’를, ‘月峯山’은 ‘달라뫼>달라미’를 표기한 것이다.

그러나 ‘別刀岳[별도오름·벨도오름]’을 ‘別刀山’으로 표기했을 때, 이 경우의 ‘山’은 ‘뫼>메·미’의 훈독자 표기가 아니라 ‘오름’의 훈독자 표기로 봐야 한다. ‘安佐山’도 민간에서 음성형이 ‘안좌

7) 岳爲吾老音 『남사록』(권1). 表岳[……岳方言作兀音] 『동국여지지』(제주목, 산천). 嶽 뫼부리 약 亦作岳 <훈몽·초, 상3>.
제주어에서는 ‘뫼부리>뫼부리’를 ‘오름’이라 하고 주로 ‘岳’으로 표기하였다. 일부 자료에서 ‘五音·吾音·吾老音·兀音[오름]’과 같이 음가자 결합 표기로 쓰기도 하였다. 그러나 지지에서는 주로 ‘오름’을 ‘岳’으로 표기하였다.

름+안좌오름'으로 전할 뿐만 아니라 '安佐岳'(『신증동국여지승람』)을 달리 표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경우의 '山'도 '오름'의 혼독자 표기로 볼 수 있다. '達山'의 경우는 민간에서 '[달싼봉][달싼봉]'(이것은 達山烽에서 達山峰을 거치는 과정에서 형성된 말로 보인다.)으로 실현되어 전한다. 이것을 고려하면, 이때의 '山'은 음성형 '[달싼오름]'의 '산' 또는 '싼'을 반영한 '산[立]'의 음가자 표기가 아닌가 한다. '城山'과 '末山'은 각각 '성산오름(성+산+오름: 城+立+岳)', '말산오름(말+산+오름: 末+立+岳)'의 차자 표기이므로, '산[立]'의 음가자로 쓴 '山'을 음독자로 전용한 예이다. '城山'과 '末山'을 '성피>성메' 또는 'жат피>жат메', '말피>말메'로 해독하면 '山'은 혼독자로 볼 수 있지만, 민간에서 이와 같은 음성형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

그리고 '松岳山'은 표기상 '松岳[송오름]'에 다시 '山'을 덧붙인 표기로 보이므로 이때의 '山'은 혼독자나 음독자로 해독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西山岳'은 민간에서 음성형이 '서모름서무름서모오름'으로 실현되는 것으로 보아 '서모름서무름서모오름'의 차자표기라 할 수 있다. '水山岳'도 '水山[물피>물메]'에 '岳'이 덧붙은 것으로, '물피오름>물메오름'의 차자표기라 할 수 있다.

'瀛洲山'은 '영주산'을 표기한 것이므로, '山'을 음독자 표기로 보아야 한다. '鷹岩山'의 경우는 '매바우오름' 또는 '매바우피>매바우메'로 차자표기로, '山'은 '오름'의 혼독자로 볼 수도 있고 '메(피)'의 혼독자로 볼 수도 있다. 『신증동국여지승람』에는 '鷹巖山'으로 표기하였으나, 이원진 『탐라지』(1653)와 유형원 『동국여지지』(1656)에는 '鷹巖岳'으로 표기하였다. '鷹巖山·鷹岩山'은 '매바우피>매바우메'의 표기로 보고, '鷹巖岳'은 '매바우오름'의 표기로 보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것은 한경면 판포리의 '넙개오름'과 비교할 수 있을 듯하다. 이 오름은 일찍부터 '넙개오름'이라 부르고 주로 '板浦岳·板乙浦岳[넙개오름]'으로 표기하였다. 그러나

『세종실록지리지』에는 ‘板浦山’으로 표기하였다.

‘火等旨’는 ‘火等枝(『신증동국여지승람』)’와 ‘不等之(이원진 『탐라지』)’를 고려하면, ‘브등지>부등지’의 차자표기임을 알 수 있다. 이때의 ‘旨’는 ‘지’의 음가자 표기이다. 그러나 ‘地稅旨’는 ‘地稅原[原俗稱旨……](유형원의 『동여지지』)’를 고려하면, ‘디세므르>지세므르’의 차자표기이므로, 이때의 ‘旨’는 ‘므르>므르’의 혼독자 표기이다.

다음 오름들은 전부 요소⁸⁾가 음가자 결합표기로 이루어진 것이다. 兎山은 다른 자료에서 ‘土山’으로 표기하였기 때문에 ‘兎’를 음가자로 본다.

高內岳[고닉오름>고내오름] 郭支岳[곽지오름] 今勿岳[금물오름] 金勿德岳[금물덕오름] 多郎時岳[다랑시오름] 道道里岳[도도리오름] 頭無岳[두무오름] 別刀山[별도오름·벨도오름] 沙罌岳[사라오름] 松岳山[송오름] 安佐山[안좌오름] 雲之岳[운지오름·운지름] 元堂岳[원당오름·웬당오름] 長兀岳[장오리오름] 地稅旨[디세므르>지세므르] 遮敏岳[자귀오름] 把古岳[바곰지오름] 破磨只岳[바메기오름] 閑坐甫山[한좌보미]

다음 오름들은 전부 요소가 음가자로 이루어진 것이다.

末山[말매·말산외] 兎山(토산)

다음 오름들은 전부 요소가 혼독자 결합표기로 이루어진 것

8) 하나의 지명은 지명에 따라 단일어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복합어로 이루어진다. 곧 ‘세미(새미)[泉]’와 같이 단일어로 이루어진 경우가 있다. 이 경우는 보통명사인 제주어 ‘세미’가 고유명사인 지명 ‘세미’로 쓰인 경우이다. 그러나 ‘세미’에 ‘물’이 덧붙은 ‘세미물’은 ‘세미+물’의 구성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앞의 ‘세미’와 같이 하나의 단어로 구성된 경우를 제외하면, 지명 대부분은 후자와 같은 구성을 보인다. 이 경우 ‘세미’는 전부 요소라 일컫고, ‘물’은 후부 요소라 일컫기로 한다.

이다.

城板岳[성널오름>성널오름] 水望岳[물벼리오름] 水山岳[물메오름] 鷹
岩山[매바우오름] 獐岳[사슴마·사슴오름] 笠山岳[갓산오름]

다음 오름들은 전부 요소가 혼독자와 음가자, 훈가자와 음독자,
음독자와 훈가자, 음가자와 혼독자의 결합 등으로 이루어진 것
이다.

禿達岳[뚝다리오름] 文士乃岳[그스늬오름] 三每陽岳[세미양오름·삼
미양오름] 西山岳[서모름>서모름·서모오름] 月罌山[달라피>달라미] 西
只浦[들개·독개] 只末山[지각메] 皮文岳[갓그리오름] 火等岳[부등지]
曉別岳[새별오름>새벨오름]

다음 오름들은 전부 요소가 음독자로 이루어진 것이다.

城山[성산오름>성산오름]

다음 오름들은 전부 요소가 혼독자로 이루어진 것이다.

葛岳[첩오름>칠오름] 井岳[글론오름] 水山[물피>물메] 水岳[물오름>
물오름] 圓山[뚝오름] 猪岳[돈오름] 蒲岳[잘찍오름]

다음 오름들은 전부 요소가 한자어로 이루어진 것이다. 곧 음독
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東巫小峽(동무소협)’은 지명인지
어떤 자연의 모습을 표현한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東巫小峽(동무소협) 山房山[산방메] 成佛庵[성부람>성부람] 石積[돌
무지?] 瀛洲山(영주산) 漢拏山(한라산)

이상의 오름 이름 표기의 용자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 음가자 표기: 高[고] 內[내] 達[달·다리] 𪎐[믹] 陽[양] 山[산>산] 別[별·벨] 𪎐[라] 只[지/기/기] 𪎐[말/각] 等[등] 𪎐[지] 𪎐[되] 郭[곽] 𪎐[지] 𪎐[금] 勿[물>물] 𪎐[대] 郎[랑] 時[시] 道[도] 𪎐[리] 𪎐[무] 無[무·미] 別[별·벨] 𪎐[도] 𪎐[사] 𪎐[송] 𪎐[안] 𪎐[좌] 雲[운] 𪎐[지] 𪎐[원] 堂[당] 長[장>장] 𪎐[울] 地[다>지] 稅[세] 遮[차·자] 𪎐[귀] 𪎐[파·마] 𪎐[파·마] 磨[마·매] 閑[한] 𪎐[좌] 甫[보]
- 훈가자 표기: 文[글·그] 三[세] 西[서>서] 月[달] 酉[둑] 浦[개] 皮[갓] 𪎐[블>브>부] 𪎐[라]
- 훈독자 표기: 葛[참>칠] 石[돌] 積[무지] 𪎐[만>민] 𪎐[스>스] 山[피>메·마·모·오름] 𪎐[궂/궂론] 水[물>매] 岳[오름] 猪[돈] 蒲[잘·궂] 𪎐[새] 板[널] 圓[둥] 鷹[매] 岩[마·화>마·우] 獐[노로·사슴] 𪎐[간] 𪎐[막>막·리]
- 음독자 표기: 東[둥] 𪎐[무] 小[쇼>소] 峽[협] 山[산] 房[방] 𪎐[성>성] 佛[불] 庵[암] 瀛[영] 洲[주] 漢[한] 𪎐[라] 山[산] 城[성>성]

3.2 개[浦]

‘개’는 주로 ‘○○浦⁹⁾’로 표기하였다. 13개의 ‘개’가 확인되는데, ‘酉只浦[독개]’는 ‘개[浦]’가 아니다.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 정의현)을 보면, ‘山川’조의 ‘오름’을 언급한 항목에서 “酉只浦[在縣東二十里 周二十五里]”라고 하고, 이원진 『탐라지』(1653) ‘정의현, 산천’조를 보면, ‘개[浦]’를 언급하는 항목에서 ‘雞浦[독개]’로 표기하였다. 전자를 보면 ‘酉只浦[독개]’는 ‘오름’으로 보이는데, 후자를 보면 ‘雞浦[독개]’는 ‘개’로 보인다. 그런데 『신증동국여지승람』(권

9) 浦 개 보 大水有小口 激 개 서 浦也 港 개 항 汊港水波 又水中行舟道 又藏舟處 汊 개 차 水歧流<훈몽·초, 상:5>

38, 정의현, 산천)에 ‘雷介[울개]’로 표기한 것이 이원진 『탐라지』(대정현, 산천)에서는 ‘鬱浦[울개]’로 표기하였다. 이때의 ‘개’는 ‘개[浦]’가 아니고 마루[湄]나 언덕을 뜻하는 지명의 전부요소에 해당한다. 이로 미루어 보면, ‘西只浦[독개]’도 ‘개[浦]’가 아닌, ‘마루’나 언덕을 뜻하는 지명 전부요소로 보인다. 특히 ‘둘레가 25리’라 한 점이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서귀포시 성산을 삼달리 ‘독자봉’ 서쪽에 ‘둘쾌’(둘개?) 또는 ‘둘개’(둘개?)라는 지명이 있는데, 이에 대응하는 지명이 아닌가 한다.

道衣灘浦는 다른 자료에서 ‘道衣離[도의여]’ 또는 ‘敦義嶼浦[一作道衣浦](『동국여지지』)’ 등으로 표기하였으므로, ‘도의엿개’의 차차 표기임을 알 수 있다. 道衣나 敦義는 ‘도의’ 또는 ‘돈의’의 음가자 결합 표기이고, 灘과 嶼, 離는 ‘여’의 훈독자 또는 훈가자 표기라 할 수 있다.¹⁰⁾

巾一浦(‘巾入浦/건들개’의 오기.) 歸德浦[돌덕개] 金寧浦[김녕개] 道衣灘浦[도의엿개] 都浦(‘道道里浦/도도릿개’의 오기로 보임.) 毛瑟浦[모슬개] 北浦[뒷개] 盍令浦[베랭잇개] 西林浦[서림개] 涯月浦(‘갯돌개/애월개’) 猊來浦[예릿개] 遮飯浦[자꿇개] 威德浦[함덕개]

이상의 개 이름 표기의 용자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음가자 표기: 巾[건] 德[덕] 金[김] 寧[녕] 道[도] 衣[의] 離[도] 毛[모] 瑟[슬] 盍[배·베] 令[령·랭] 西[서>서] 林[림] 猊[예] 來[릭] 遮[차자] 飯[귀·구] 威[함]

훈가자 표기: 入[들] 歸[돌]

훈독자 표기: 浦[개] 灘[여] 北[뒷] 涯[갯] 月[달]

10) 嶼 섬 서.....灘 여흘 탄 瀨也 卽水中沙處 瀨 여흘 퇴 水流沙上 又湍也 <훈몽·초, 상:4-5>. 離 여흘 리<신합, 하:43>. ‘여흘’은 제주어에서 ‘여’로 실현된다.

3.3 내[川]

‘내’는 주로 ‘川’으로 표기하였다.¹¹⁾ 15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加內大川’은 ‘더늬큰내’, ‘加內小川’은 ‘더늬아끈내’의 차자표기이다. ‘加內川[더늬내]’는 ‘加來川[더랏내]’로도 표기하고, ‘加內大川’도 ‘加來大川[더릭큰내]’ 또는 ‘大加來川[큰더랏내]’로도 표기하였다. ‘아끈내’는 ‘작은 내’라는 뜻으로, 중세국어 ‘아춘’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아춘>아끈’의 과정으로 소리가 변한 것으로 보인다. ‘아끈내’는 일제강점기부터 ‘岳近川[아끈내]’으로 표기하기도 하였다. ‘加內大川’의 ‘大川’은 ‘한내’의 차자표기로 볼 수 있으나, 민간에서는 ‘큰내’라고 하기 때문에 ‘큰내’의 차자표기로 읽어 둔다. 그러나 제주목 ‘大川’의 경우는 지금까지도 ‘한내’라 하므로 ‘한내’의 차자표기라 할 수 있다. 곧 ‘大’는 ‘한’ 또는 ‘큰’의 혼독자 표기로 쓰였다.

‘甘山川’의 경우, ‘甘山’이 ‘감메(감뎌)’ 또는 ‘금메(금뎌)’의 혼독자 결합표기로 보면, ‘감뎌내’ 정도의 음성형을 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민간에서 ‘감메’라는 음성형을 전혀 확인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甘山’은 ‘神山(신산)’ 또는 ‘神山岳[신산오름]’으로 표기한 것을 보면, ‘甘’은 神 또는 神聖한 것을 뜻하는 고구려어 ‘감금’에 대응하는 것이라 할 수도 있다. 여기서는 민간에 남아 있는 ‘감산’이라는 음성형을 취하여 ‘감산내’의 표기로 보아둔다.

‘餘叱結川’에 대응하는 음성형은 전하지 않는다. 다만 오늘날 전하는 ‘여찌리오름’의 음성형을 고려하면 ‘餘叱結川’은 ‘옛겨랏내>옛저랏내’의 차자표기라 할 수 있다. ‘餘叱’은 ‘옛’의 음가자 결합표기, 結은 ‘결>절’의 음가자 표기, 川은 ‘내’의 음독자 표기이다.

11) 川 내 천 衆流注海爲川 <훈몽-초, 상:4>

‘옛겨리>옛저리’의 셋째 음절 ‘이’는 표기에서 생략되었다. ‘여찌리 오름’은 오늘날 ‘如節岳’으로 표기하는 것으로 보아, ‘옛겨리’가 ‘옛저리[여찌리]’로 구개음화하였다. 그런데 19세기까지도 여전히 ‘餘結川’으로 표기한 것으로 보아, 민간에서 음성형이 구개음화하였지만, 표기는 의고성 때문에 옛 표기를 그대로 썼던 것으로 보인다. ‘餘叱結川’은 오늘날 ‘여훗내>여웃내’ 또는 ‘松川[솔내]’의 옛 이름으로 보인다.

‘山底川’의 경우, 민간에서 ‘산지’ 또는 ‘산짓내[산진내]’로 소리가 전한다. 그러므로 ‘山底川’은 ‘산뎃내>산젓내>산짓내’의 차자표기이고, ‘산뎃내’가 소리가 변하여 ‘산짓내’로 실현된 것이다. 일제강점기부터 ‘山地川[산짓내]’으로 표기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山底’는 ‘산더>산저’의 음가자 결합 표기로 보인다.

‘洪爐川’은 다른 문헌에 ‘烘爐川’으로 표기하고, 오늘날 민간에서 ‘홍리’로 전하므로 ‘홍룻내’의 차자표기라 할 수 있다. ‘홍로>홍리’의 과정으로 밝은 것이다.

加內大川[더늑큰내>더느큰내] 加內小川[더늑아춘내>더늑아끈내>더느아끈내] 甘山川[감산내] 介老川[개룻내] 都近川[도근내>도그내] 大川[한내] 靈泉川[영세맛내] 別刀川[별뎛내>벨뎛내] 屏門川[병문내>뽕문내] 山底川[산뎃내>산젓내] 塞達川[색다랏내] 松淡川[솔담내] 餘叱結川[옛겨랏내>옛저랏내] 狐村川[여늑믄을내] 洪爐川[홍룻내]

이상의 내 이름 표기의 용자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음가자 표기: 內[늑느] 甘[감] 介[개] 老[로] 都[도] 近[근] 𡵓[삼>세미] 別[별벨] 刀[도] 山[산] 底[더>저] 塞[색] 達[달>다리] 淡[담] 餘[여] 叱[시] 結[결>겨리] 洪[홍] 𡵓[로]

훈가자 표기: 加[더] 松[솔]

훈독자 표기: 川[내] 大[한/큰] 小[아춘>아끈] 狐[여늑] 村[믄을]

음독자 표기: 山[산] 𪛗[영] 𪛗[병·뽕] 門[문]

3.4 섬>섬[島]

‘섬>섬’은 주로 ‘島’로 표기하였는데, 세 음절 이상으로 된 섬 이름의 경우 ‘島’를 표기에서 생략하여 ‘加波’(加波島)와 같이 표기하였다. ‘섬’은 20개 항목이 확인되는데, ‘楸子島 / 身島 / 一云候風島’라 한 것을 한 항목으로 계산하면 항목 수는 줄어들게 된다. 그리고 ‘候風島’는 지명이라 할 수 없다.

‘斜鼠島’는 ‘麝鼠島·斜鼠島[사서섬]’ 또는 ‘斜藪島·斜數島·蛇水島[사수섬]’ 등으로 표기하다가, 일제강점기부터 ‘泗水島(사수도)’로 표기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豆落島’는 ‘斗落島’(이원진 『탐라지』)를 고려하면, ‘두라기섬>두라기섬’의 차자표기임을 알 수 있다.

‘小火脫’과 ‘大火脫’은 ‘小火脫島’와 ‘大火脫島’를 이르는데, 이원진 『탐라지』에서는 ‘小化奪島’와 ‘大化奪島’로 표기하고, 유형원의 『동국여지』에 ‘大化奪島[一作火脫 在楸子島西南……]’라 하였으므로, ‘火脫’과 ‘化奪’은 ‘화탈’의 음가자 결합 표기임을 알 수 있다. 이 ‘화탈’이 오늘날 ‘관탈’로 실현되고 있다.

‘加波’는 ‘加波島’를 이르는데, 다른 문헌과 지도에서 ‘加乙波知島[덜바디섬]’(『중종실록』 권55, 20년 을유), ‘加坡島[더바섬]’(『성종실록』 권253, 22년 신해), ‘盖波島[더바섬]’(이원진 『탐라지』) 등으로 표기되었다. 민간에서는 ‘더바섬>더우섬’으로 실현된다.

‘楸子島’는 조선 세종실록(세종실록 권61, 세종 15년 윤8월 정축 등)에서 ‘舟子島’로 표기하였으므로, ‘쥬즈섬>주즈섬’의 차자표기라 할 수 있다. 오늘날은 한자음으로 읽고 ‘추자도’라 하고 있다. 한편 ‘추자도’의 본 섬은 ‘身島’라 했는데, 이는 ‘몸섬’의 표기로 보인다. ‘候風島’는 배가 순풍을 기다리는 섬의 뜻을 가진 한자 표기

이므로, 지명이라고 할 수는 없다.

加波(加波島/더바섬) 貫島[웬섬] 大火脫(大火脫島/큰화탈섬) 豆落(豆落島/두라기섬) 麼哭(麼哭島/마라섬·마래섬) 凡島[범섬] 斜鼠[사셔섬>사서섬] 斜餘鼠(斜餘鼠島/사여서섬>사여서섬) 森島[송섬>숲섬] 修德(修德島/수더기섬>수더기섬·수대기섬) 小火脫(小火脫島/덕은화탈섬>죽은화탈섬) 身島[몸섬] 牛島[쇼섬>소섬>웨섬] 衣脫(衣脫島/옷벗은섬) 竹島[대섬] 知叡(知叡島/디귀섬·디귀섬>지귀섬·지귀섬) 知道(知道島/디길섬>지길섬) 淸路(淸路島/프롱이섬·푸롱이섬>푸렁이섬) 草蘭(草蘭島/새란섬·새난섬) 楸子島[쥬즈섬>주즈섬] 候風島(후풍도)

이상의 섬 이름 표기의 용자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음가자 표기: 波[바파] 火[화] 脫[탈] 豆[두] 落[락락기] 麼[마] 哭[라] 凡[범] 斜[사>샤] 鼠[셔>서] 餘[여] 修[슈>수] 德[덕] 知[다>지] 叡[귀] 路[로·롱·롱이] 蘭[란·난] 楸[쥬>주] 子[즈>자]

훈가자 표기: 加[더] 松[솔] 道[길]

훈독자 표기: 島[섬>섬] 貫[웬] 大[큰] 森[송>숲] 小[덕은>죽은>죽은] 身[몸] 牛[쇼>소>웨] 衣[온>옷] 竹[대] 淸[프르·프르·] 草[새]

음독자 표기: 候[후] 風[풍]

3.5 못[池]·소[湫]·물[水]

‘못’과 ‘소’, ‘물’은 각각 ‘池’와 ‘湫’, ‘水’로 표기하였다. ‘大池’는 ‘한못’(큰 못)의 차자표기로, 세 군데가 표시·표기되었다. ‘松岳山’의 ‘大池[한못]’는 ‘百二十步’¹²⁾라 하고, ‘三每陽岳’의 ‘大池[한못]’

12) 『新增東國輿地勝覽』(권38, 대정현, 산천)에는 “松岳山[……山巔有池 徑可百餘步]”라고 하였다.

은 ‘頂上有畚數十頃’¹³⁾이라 하였다. 정의현청 동쪽에 ‘大池[한못]’이라 표시하고, 그 못 미치는 곳에 ‘池[못]’라 표기한 못이 있다. 이 못도 『新增東國輿地勝覽』(권38, 정의현, 산천)에는 ‘大池[한못]’으로 표기하였다. 이상 ‘한못’ 4개를 포함하여 9개의 ‘못’과 ‘소’, ‘물’을 확인할 수 있다.

‘箇乃池’의 경우, 다른 자료에 ‘迦藍池’로 표기한 것으로 보아, 오늘날 ‘개남못’에 대응한다. ‘箇乃池’는 ‘개늬못’ ‘迦藍池’는 ‘가남 못개남못’ 정도의 차자표기라 할 수 있다.

‘等於里池’는 다른 자료에 ‘背池’로도 표기한 것으로 보아 ‘등어리못’의 차자표기라 할 수 있다. ‘等於里’는 ‘등’의 방언인 ‘등어리’를 표기한 것이고, ‘背’도 마찬가지로이다. ‘古道水’은 오늘날도 ‘고도물’이라고 하는데, 이에 대응하는 것이다.

箇乃池[개늬못] 古道水[고도물] 大池[한못] 等於里池[등어리못] 龍湫[용소] 龍湫水[용소물]

이상의 못·소·물 이름 표기의 용자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음가자 표기: 箇[개] 乃[늬] 古[고] 道[도] 等[등] 於[어] 里[리]
 훈독자 표기: 池[못] 水[물>물] 湫[소] 大[한]
 음독자 표기: 龍[용]

3.6 제주도의 옛 이름

제주도의 옛 이름은 다음과 같이 표기하였다.

13) ‘頂上’이 ‘산 따위의 맨 꼭대기’를 뜻하므로 이는 잘못이다. 『新增東國輿地勝覽』(권38, 대정현, 산천)에는 “三每陽岳[在縣西三十里 岳中寬敞有水田數十頃 名大池]”라 하였다. 이곳에 있는 논을 ‘한논>하논’이라 하는데, 차자표기로 ‘大畚’이라 쓴다.

濟州 耽毛罽 毛罽 耽罽 東瀛洲

‘濟州’는 『고려사』(탐라현)에 “을미년(충렬왕 21년, 1258)에 고쳐 濟州라 했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고려 고종 1년(1243)과 고종 2년(1244)에도 ‘濟州’라 한 것으로 보아 고려 고종 때인 1220년대에 이미 ‘濟州[제주>제주]’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다만 ‘濟’의 뜻이 ‘물을 건너다’는 뜻인지, ‘담모라>담라’의 ‘담’의 뜻으로 쓴 것인지 확실하지 않다. 기존에는 ‘耽羅’의 ‘耽’은 ‘圓’ 또는 ‘높대[高]·산’의 뜻으로 보았다. 그러나 김홍식(1986)에서는 ‘耽’과 ‘濟’가 ‘山’을 뜻하는 말로, 같은 음성형을 표현한 것이라 하였다. 한편 조선 『성종실록』(권262, 23년 2월 기유)에서 ‘濟州’와 ‘濟州人’을 ‘頭無岳[두무오름두미오름]’ 또는 ‘頭禿也只[두미야기]’이라 한 것도 있다. 하지만 ‘耽’과 ‘濟’가 동일한 음성형을 반영한 것인지 속단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뜻이 ‘圓’ 또는 ‘高’, ‘山’의 뜻을 나타내는지도 확실하지 않다. 과제로 남겨둔다. ‘濟州’의 ‘州’는 고려 때 붙이기 시작한 ‘州府郡縣’의 하나로 붙인 것으로 보인다.

‘耽毛罽’는 ‘耽毛羅’ 또는 ‘耽牟羅’로도 표기하였다. 중국사서인 『北史』 ‘百濟傳’에 ‘耽毛羅國’으로 표기하고, 『隋書』에서 ‘耽牟羅國’으로 표기하였기 때문에 일찍부터 ‘耽毛羅·耽牟羅’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특히 ‘耽·耽·耽’ 등으로 표기한 것, ‘毛·牟’로 표기한 것, ‘羅·罽’로 표기한 것 등을 고려할 때, ‘담모라’ 정도로 불렀을 것으로 보인다. 남풍현(2003)은 ‘耽牟羅’를 ‘tammora’ 또는 ‘tamora’로 읽고, 여기서 제2음절 ‘mo’ 또는 ‘o’음이 탈락한 것이 ‘耽羅’로 보았다. 나아가 ‘牟’는 삼국시대에 많이 쓰이고, ‘毛’는 고려시대에 많이 쓰인 음가자여서 ‘耽毛羅’보다 ‘耽牟羅’가 오래된 표기라 하였다. ‘牟羅/毛羅’는 城이나 防衛의 要塞로 쓰이는 聚落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한다.

‘毛罽’는 보통 ‘毛羅’ 또는 ‘挖羅’로도 표기하였다. 남풍현(2003)

은 ‘耽羅’의 이칭으로 ‘毛羅’가 쓰인 것을 보면 ‘耽羅’의 고품이 ‘毛牟羅(tamora)’였을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하였다.

‘耽𪛗’는 주로 ‘耽羅’로 표기하였다. 이는 이전에 ‘耽牟羅>耽毛羅’로 표기하던 것을 고려시대에 ‘耽羅’로 굳어졌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東瀛洲’는 ‘瀛洲(삼신산의 하나)’와 관련된 것인데, 고려 말부터 ‘제주’를 ‘瀛洲’라 한 데서 특별히 ‘東瀛洲’라 한 것으로 보인다. ‘제주’를 ‘瀛洲’라 한 것은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쓰인 것으로 보 이는 「瀛洲誌」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제주’를 ‘東瀛洲’라 한 것은 『동국여지승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상의 제주도 옛 이름 표기의 용자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음가자 표기: 耽[담] 毛[모] 𪛗[라] 毛[탁] 𪛗

음독자 표기: 州[주>주] 東[동] 瀛[영] 洲[주>주]

미상: 濟[?]

3.7 읍치(邑治)와 현(縣), 성(城)

당시 邑治는 ‘濟州, 大靜, 旌義’ 등 세 곳인데 눈에 띄게 색을 칠하여 표시하였다.

조선 초기에 濟州牧은 大村縣에 성을 쌓아, 東道靜海鎭과 西道靜海鎭을 관할하였다. 당시 縣村은 17현이었다. 태종 16년(1416: 『태종실록』 권31, 16년 병신)에 당시 濟州都安撫使 吳湜과 전 判官 張合이 건의에 따라, 東道の 新村縣·咸德縣·金寧縣과 西道の 貴日縣·高內縣·厓月縣·郭支縣·歸德縣·明月縣 등 9현을 묶어 濟州牧이 관할하고, 東道の 縣監은 旌義縣을 본읍으로 하여 兎山縣·狐兒縣·洪爐縣 등 3현을 관할하게 하고, 西道の 縣監은 大靜縣을 본읍으로 하여 猊來縣·遮歸縣 등 2현을 관할하게 하였다. 그리고 이 해 9월에 대정현감과 정의현감 부임과 관련된 내용(『태

중실록』 권32, 16년 9월 갑진)을 『태종실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이때 제주를 제주목, 대정현, 정의현 등 3읍으로 나누었음을 알 수 있다. 당시 ‘大靜縣[대정현]’과 ‘旌義縣[정의현]’이 이미 존재했던 현촌으로 나오는데, 이 두 현 이름이 고유 지명을 딴 것인지, 인위적으로 만든 이름인지 확실하지 않다. 특히 ‘大靜縣’은 ‘山房縣’으로 표기한 것으로 보아, 조선 초기에 인위적으로 만든 이름이 아닌가 한다. 곧 ‘山房縣’은 ‘山房山’과 관련된 이름인데, 大靜縣은 고유 지명을 딴 이름이 아닌 듯하다. ‘旌義縣’도 인위적인 이름으로 보인다.

『東輿備攷』에 ‘○○縣’으로 표기한 ‘縣’은 고려시대와 조선 초기에 존재했던 縣村을 이른다. 그래서 『新增東國輿地勝覽』(권38, 제주목)에서는 ‘古蹟’ 조에서 다루었다.

『東輿備攷』에서는 ‘高內縣, 古旌義縣, 郭支縣, 金寧縣, 大村, 新村縣, 涯月縣, 猊來縣, 兎山縣, 咸德縣, 狐兒縣, 洪爐縣’ 12개 현을 표시 또는 표기하였는데, ‘歸日村, 歸德縣, 明月縣’ 등은 누락하였다.

당시 邑城은 ‘濟州, 大靜, 旌義’를 비롯하여 ‘涯月城, 別防城, 古旌義縣’을 표시하고, 이 외에 ‘缸波頭 古城[항바두리 옛성/묵은성], 古城, 古土城, 古長城’ 등이 표기되어 있다. ‘大水山防護所城’과 ‘西歸浦防護所城’ 등은 표시하지 않았다.

‘古旌義縣’은 조선 초기에 ‘旌義縣’이 ‘晉舍里’로 옮긴 데서 붙인 것이다. 大村은 大村縣으로, 당시 濟州城 안과 밖 일대에 형성된 고을을 이른다. ‘大村’은 ‘한막술’의 차자표기인지, 그냥 ‘큰 막을’을 뜻하는 한자인지 확실하지 않다.

‘缸波頭古城’은 ‘항바두리’에 쌓은 옛 흙성을 이른다. ‘缸波頭’는 민간에 남아 있는 ‘항바두리’의 차자표기이다. ‘古城’은 두 군데 표기하였는데, 제주목 ‘古城[옛성/묵은성]’과 정의현 ‘古城[옛성/묵은성]’이다. ‘古長城’은 제주목 해안 세 군데에 표기하였는데, 제주

沿海에 돌아가며 돌로 쌓은 성을 이른다.

이상의 邑治와 縣城 이름 표기의 용자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음가자 표기: 高[고] 內[니] 旌[정>정] 義[의] 郭[곽] 支[지] 金[김] 寧[녕] 猓[예] 來[릭] 甌[토] 山[산] 威[함] 德[덕] 兒[식] 洪[홍] 爐[로]

훈독자 표기: 池[못] 水[물>물] 湫[소] 大[한] 涯[지] 月[달] 狐[여식]

음독자 표기: 甌[현] 古[고] 大[대] 村[촌] 新[신]

3.8 다리[橋]

‘다리’는 ‘橋’로 표기하였다. ‘加內大川橋[더너큰넛다리]’, ‘加內小川橋[더너아끈넛다리]’, ‘甘山川橋[감산넛다리]’, ‘塞達川橋[색다릿다리]’, ‘狐村川橋[여스믄넛다리]’, ‘別刀川橋[별도넛다리·벨도넛다리]’, ‘大川橋[한넛다리]’, ‘石橋[돌다리]’ 등이 표기되었다.

加內小川橋의 경우, ‘더너아끈넛다리’의 차자표기로, 민간에서 전하는 ‘아끈내’에 대응하는 것이다. ‘아끈내’는 ‘작은 내’라는 뜻을 가진 말인데, ‘아끈-’은 중세국어 ‘아춘아들’(조카)에서 확인되는 ‘아춘(微 아출 미<백련·동경 17>)’에 대응하는 것이다. 이로 보면 중세어 ‘앗다’가 제주어에서는 ‘아끄다’로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狐村川’의 ‘狐村’은 이전에 ‘狐兒村’으로 표기하였기 때문에 ‘狐’와 ‘狐兒’는 ‘여스>여시’에 대응하는 표기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다리[橋]’ 이름 표기의 용자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음가자 표기: 加[더] 內[나·니] 甘[감] 塞[색] 達[달·다리] 別[별·벨] 刀[도]

훈독자 표기: 橋[다리] 大[큰/한] 川[내] 小[아끈] 狐[여식] 村[믄울]

石[돌]

음독자 표기: 산[산]

3.9 기타

기타 지명에는 한두 개 항목만 표기되어 별도의 목록으로 나누기 어려운 것들을 모두 포함하여 다룬다.

‘館(관)’은 제주목 ‘朝天館(도턴관>조천관)’과 정의현 ‘靈泉館(영세미관)’ 등이 보인다. ‘館(館)’은 ‘客舍(館 집 관 客舍亦作館<훈몽·비준, 중 5>’, 館 직사 관 館俗客舍 候館 公私館<자류 상91>’, 館 직스 관<아학 상 9>’에 대응하는 것이다. ‘朝天[도턴>조천]’에 있는 관이라는 데서 ‘朝天館’이라 하고, ‘靈泉’에 있는 관이라는 데서 ‘靈泉館’이라 하였다.

‘골굴’은 ‘洞’으로 표기하였는데, ‘毛洞[털골털굴]’과 ‘往洞[왕골왕굴]’이 보인다. ‘洞’은 ‘굴’의 훈독자 표기인데, 제주어에서는 ‘굴’로도 실현된다. ‘毛洞’은 ‘털골털굴’의 표기로 보이는데, 조선 후기에 이곳에 목장을 설치하였기 때문에 오늘날은 ‘모동장(毛洞場)’이라는 음성형만 남아 있다. ‘往洞’은 ‘왕골왕굴’의 차자 표기로, 오늘날도 ‘왕굴’이라 한다.

‘꽃’은 ‘藪’로 표기하였다. ‘大藪[한꽃]’과 ‘大橋藪[한드리꽃]’이 보인다. 『신증동국여지승람』(권38, 제주목, 산천)의 “金寧藪……藪諺作花”와 이원진 『탐라지』(제주목, 풍속)에 “……以藪爲高之……” 등을 고려하면 ‘藪’는 ‘송>숲’에 대응하는 제주어 ‘꽃[花]’ 또는 ‘고지[高之]’의 훈독자 표기임을 알 수 있다. 특히 ‘花[꽃]’ 또는 ‘高之[고지]’로 표기한 것을 보면, 제주어에서 ‘꽃’은 ‘꽃’과 ‘고지’로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현대 제주어에서도 ‘꽃’과 ‘고지’를 확인할 수 있다.

‘돌도’는 ‘梁’으로 표기하였다. ‘石梁[돌도]’이 보인다. ‘梁’은

‘돌(梁 돌 랑 水橋也 又水堰也 又石絶水爲梁<훈몽-초, 상:2>)’의 혼독자 표기인데, 현대 제주어에서는 ‘도’로 실현된다.

‘드르’는 ‘坪’으로 표기하였다. ‘廣分坪[넓은드르]’와 ‘水山坪[물멧드르]’이 보인다. ‘坪’은 ‘드르’의 혼독자 표기이다.

‘돌’은 ‘石’으로 표기하였다. ‘矢射石’은 ‘살손돌>살쏜돌’의 차자 표기이다. 조선 후기부터 ‘三射石’이라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矢’는 ‘살’, ‘射’는 ‘손>쏜’, ‘石’은 ‘돌’의 혼독자 표기이다.

‘바화>바우’는 ‘峇’으로 표기하였다. ‘財峇[직바화>재바화>재바우], 窟峇[굴바화>굴바우], 方峇[모바화>모바우]’ 등이 보인다. ‘峇’은 ‘巖’의 속자로, ‘바화>바우(바위)’의 혼독자 표기이다.

‘밭왓’은 ‘田’으로 표기하였다. ‘古嶺田[고령밭]’이 보인다. ‘田’은 ‘밭왓’(밭)의 혼독자 표기이다.

‘암즈>암자’는 ‘庵’으로 표기하였다. ‘尊者庵(존자암)’과 ‘成佛庵(성불암>성불암[성부람])’이 보인다. ‘庵菴’은 ‘암’의 음독자(庵 덜 암 僧居草庵<훈몽-비준 5ㄴ>, 庵 小草庵 암자 암 菴全菴通<석요 상 38ㄱ>, 菴 암즈 암<왜해 상 53ㄱ>) 표기이다. ‘尊者庵’의 ‘尊者’는 한자어이다. ‘成佛庵’은 ‘암자’ 이름으로 쓰인 것이 아니라 ‘오름’ 이름으로 쓰인 것인데, 실제 암자가 있었는지 확실하지 않다.

‘굴’은 ‘穴’로 표기하였다. ‘毛興穴[모흥굴·멍굴]’이 보인다. ‘穴’은 ‘굴(구멍)’ 또는 ‘굴’의 혼독자 표기이다. 이 굴은 민간에서 ‘멍굴’이라는 하는 것으로 보아 ‘毛興穴’은 ‘멍굴’의 차자표기로 보인다. 다른 자료에서는 慕興穴·牟興穴[멍굴] 등으로도 표기하였다.

‘精舍(정사)’는 ‘金寧精舍[김녕정사]’만 표기하고, ‘月溪精舍[월계정사]’는 표기하지 않았다. ‘精舍(정사)’는 한자어이다. ‘金寧[김녕]’은 지명으로 남아 있다. ‘月溪’도 ‘월계’의 차자표기로, 예로부터 ‘월계 진 좌수’ 이야기와 같이 ‘월계’라 하고 있다.

‘齋(재)’도 ‘東齋(동재)’만 표기하고, ‘西齋(서재)’는 표기하지 않았다. ‘齋(재)’는 한자어이다. 이상의 기타 지명 표기의 용자를 분

석하면 다음과 같다.

음가자 표기: 往[왕] 古[고] 嶺[령] 財[자>재] 毛[모] 興[흥이] 金
[김] 寧[녕] 月[월] 溪[계]

훈독자 표기: 館[館]관 畵[畵]세미 毛[털>털] 洞[골>골] 大[한] 橋
[다리] 藪[곳] 矢[살] 射[손>손] 石[돌] 岩[바>바위]
田[밭>밭] 庵[암] 方[모] 餽[존] 耆[자] 穴[굴]

음독자 표기: 輶[도>도] 大[탄>찬] 靈[영] 窟[굴]

IV. 결론

지금까지 17세기 후반의 지도로 추정하는 『東輿備攷』의 ‘제주도 지도’ 부분의 제주 지명을 정리하고, 그 지명을 해독하여 국어학적으로 분석하였다. 한자차용표기를 해독할 때에는 중세국어와 근대국어 한자 학습서에 의존하였다. 하지만 제주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재 전하는 지명의 음성형도 참고하였다.

『東輿備攷』는 연구자에 따라서 『新增東國輿地勝覽』의 내용을 반영한 것으로 보기도 하고, 그 후의 지지 내용을 보충하여 반영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제주 지명’ 표기와 내용을 비교해 보면, 『東輿備攷』와 『新增東國輿地勝覽』의 표기가 대부분 일치하고, 몇 개만 조금 다르다. 지명 표기의 경우는 『東輿備攷』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표기가 동일한 것이 대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지명의 내용도 『新增東國輿地勝覽』의 것을 거의 그대로 반영하였다. 정의현 서쪽에 표기되어 있는 ‘三每陽岳’은 ‘狐兒嶺’ 서쪽의 ‘洪爐嶺’에 있는 것으로 표기하여야 하는데, ‘狐兒嶺’ 동쪽에 있는 것으로 표기하였다. 이것은 『신증동국여지승람』의 “三每陽岳[在縣西三十里……]”를 반영한 것이다. 물론 이것은 기본적으로 오류이다. 그러나 『신증동국여지승람』에 ‘道道里浦[在州西十里]’와 ‘水望[在縣西三

十里]로 표기한 것이 ‘都浦[十]’와 ‘水望岳[旋三十]’으로 표기한 것
것, ‘甘山川’과 ‘甘山橋’로 표기한 것을 ‘甘山川橋’로 표기한 것 등
을 고려하면 이 지도가 『신증동국여지승람』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 곧 『東輿備攷』는 『新增東國輿地勝覽』의
내용을 전적으로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17세기의 이원진 『耽羅志』의 지명 표기와 『耽羅圖』의 지명 표기와
다른 것이 많아서, 『新增東國輿地勝覽』의 내용을 반영한 지도로
보아야 할 듯하다.

또한 『東輿備攷』의 제주 지명은 170여 개를 확인할 수 있는데,
지명 표기 위치와 내용 등을 고려할 때 당시 상황을 사실적으로
반영한 지도라고 하기 어렵다. 곧 당시까지 전하는 지지 내용을 바
탕으로 하여 추상적으로 그린 지도라고 할 수밖에 없다. 가령 서귀
포 앞바다에 있는 섬은 실제로 ‘(東)知旼→森島→衣脫→凡島(西)’ 순
서로 있는데, 이 지도에는 ‘(東)凡島→衣脫→森島→知旼(西)’ 순서로
표기하였다. 곧 『東輿備攷』는 17세기 후반에 작성한 지도로 보이지
만, 『東輿備攷』의 제주 지명은 당시 지명 표기를 반영한 것이 아니
라 적어도 16세기 지명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이원진
『탐라지』(1653)에 ‘不等之川’과 ‘雞浦’, ‘紫蒲岳’, ‘敦義嶼浦’ 등으로
표기한 지명이 이 지도에는 각각 ‘火等旨’와 ‘酉只浦’, ‘蒲岳’, ‘道衣
灘浦’ 등으로 표기하였기 때문이다. 이상의 예로 보면, 『東輿備攷』
에 표기한 제주 지명 표기는 17세기의 표기가 아니라 16세기의 『신
증동국여지승람』의 지명 표기를 많이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로 보아 『東輿備攷』의 ‘제주도 지도’는 16세기의 지지 내용을 바
탕으로 하여 추상적으로 그린 것으로 추정한다.

『東輿備攷』에는 170여 개의 제주 지명을 한자차용표기로 표기하
였다. 제주 지명의 후부 요소의 경우, ‘○○오름’은 ‘○○岳’으로,
‘○○뽕>○○메.마’는 ‘○○山’으로, ‘○○개’는 ‘○○浦’로, ‘○○
내’는 ‘○○川’으로, ‘○○못’은 ‘○○池’로, ‘○○소’는 ‘○○淵’ 등

으로 표기하였다. 지명의 전부 요소는 ‘곶론○○’은 ‘并○’으로, ‘물○○>물○○’은 ‘水○’으로, ‘바곰지○○’은 ‘把古○’ 등으로 표기하였다.

지명 표기에 ‘山’이 많이 쓰였는데, 주로 ‘피’ 또는 ‘피’의 변음인 ‘매·마·모’의 훈독자 표기로 쓰였으나, ‘오름’의 훈독자로 쓰이기도 하였다. 또한 현대국어 ‘선[立]’에 대응하는 제주어 ‘산’의 훈가자로도 쓰였다. 그리고 ‘漢拏山’의 경우는 음독자로도 쓰였다. 그러므로 차자표기 ‘山’을 해독할 때는 ‘산’ 또는 ‘오름’의 훈독자로 쓰였는지, ‘산[立]’의 음가자로 쓰였는지, ‘산’의 음독자로 쓰였는지 주의해야 한다.

『東輿備攷』에서 확인되는 지명 목록과 해독음을 제시하여 결론을 대신한다. 중복되는 大池와 大川橋 등은 한 항목만 제시하였다.

加內大川橋[더늑큰내드리] 加內小川橋[더늑아끈내드리] 加波[더바섬]
葛岳[췌오름>췌오름] 甘山川橋[감산내드리] 甘浦岾[감보므르] 箇乃池
[개늑못] 介老川[개룻내] 巾一浦[巾入浦의 오기/건들개] 孤根山[고근산]
高內岳[고늑오름] 高內峴[고늑현] 古道水[고도물] 高齡田[고령밭] 古城
[옛성/묵은성] 古長城[고장성] 古旌義峴[고정의현] 古土城[고토성] 郭支
岳[곽지오름] 郭支峴[곽지현] 貫島[괘섬] 廣分坪[넓은드르] 廣壤堂[광양
당] 屈山[굴피] 窟岩[굴바회] 歸德浦[돌덕개] 金寧精舍[김녕정사] 金寧
浦[김녕개] 金寧峴[김녕현] 今勿岳[금물오름] 金勿德岳[금물덕오름] 多
郎時岳[다랑시오름] 達山[달산] 大橋薺[한드리꽃] 大薺[한꽃] 大靜[대정]
大池[한못] 大川橋[한내드리] 大村[한므늑/대촌] 大火脫[큰화탈] 都近川
[도근내] 道道里岳[도도리오름] 道衣灘浦[도의여개] 都浦[도개?] 禿達岳
[뽕다리오름] 東巫小峽[동무소협] 耽毛岾[탐모라담모라] 毛岾[탁라
닥라] 耽毛[탐라담라] 濟州[제주>제주] 東瀛州[동영주>동영주] 豆落
[두라기섬] 等於里池[등러리못] 麼岾[마라섬] 末山[말미] 毛洞[털굴] 毛
瑟浦[모슬개] 毛興穴[모흥굴·명굴] 文士乃岳[그스늑오름] 方岩[모바회]
盍令浦[메령잇개] 凡島[범섬] 別刀山[벨도오름] 別刀川橋[벨도내드리]
別防城[벨방성] 屏門川[벙문내] 并岳[곶론오름] 北浦[뽕개] 飛揚島[비양
섬] 沙罽岳[사라오름] 斜鼠[샤셔섬>사셔섬] 斜餘鼠[샤여셔섬>사여셔섬]

山房山[산방미] 山底川[산저내] 森島[송섬>숲섬] 三每陽岳[세미양오름]
 塞達川橋[색다리내드리] 西林浦[서림개] 西山岳[서모오름·서모름] 石
 橋[돌다리] 石梁[돌도] 石積[돌무지] 成佛庵[성불암] 城山[성산오름] 城
 板岳[성널오름] 小火脫[덕은화탈] 松溪川[송담내] 松岳山[송오름] 愁德
 [슈덕이섬] 水望岳[물보라오름] 水山[물피] 水山岳[물피오름] 水山坪[물
 메드르] 水岳[물오름] 矢射石[살손돌] 身島[모섬] 新村縣[신촌현/새마을
 현] 安佐山[안좌오름] 涯月城[곶돌성]·涯月浦[곶돌개]·涯月峴[곶돌현]
 於等浦[어등개] 餘叱結川[엇겨릿내] 瀛洲山[영주산] 靈泉館[영세미관]
 靈泉川[영세미내] 竜湫[용소] 竜湫水[용소물] 猊來浦[예릭개] 猊來峴[예
 릭현] 往洞[왕굴] 牛島[소섬] 雲之岳[운지오름] 元堂岳[원당오름·원당
 오름] 月罽山[달라미] 西只浦[둑개] 鷹岩山[매바회오름] 衣脫[옷벗은섬]
 笠山岳[간산오름] 獐岳[사슴이오름] 長兀岳[장올리오름] 財岩[직바회]
 猪岳[돈오름] 旌義[정의] 朝天館[도턴관] 尊者庵[존자암] 竹島[대섬] 池
 [못] 知道[디길섬] 只末山[지각메] 知故[디귀섬] 地稅旨[디세므르] 遮故
 岳[자귀오름] 遮故浦[자귀개] 淸路[프롱이섬] 草蘭[새난섬] 楸子島[추즈
 섬·주즈섬] 兎山縣[토산현] 把古岳[과곰지오름·바곰지오름] 破磨只岳
 [과메기오름·바메기오름] 蒲岳[잘피오름] 皮文岳[갓그리오름] 漢拏山
 [한라산] 閑坐甫山[한좌보미] 威德浦[함덕개] 威德縣[함덕현] 缸波頭古
 城[항바두 목은성] 狐兒峴[예릭현] 狐村川橋[여스믈내드리] 洪炉川[홍
 룯내] 洪爐縣[홍로현] 火等旨[브등지내] 曉別岳[새별오름·새벨오름]

주제어(Key words): 동여비고(東輿備攷, DongYeo-BiGo),

제주 지명(Jeju place name),

신증동국여지승람(SinJeung-DongGuk-YeoJi-SeungRam),

한자 차용 표기(The ways of transcribing Korean with
Chinese characters),

차자 표기(Transcription of Korean), 탐라지(TamNaJi)

참고문헌

1. 단행본

- 경북대학교출판부(1998), 『東輿備考』, 경북대학교출판부.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2002), 『영남학』 2호.
권영철(1979), 『瓶窩李衡祥研究』, 재단법인 한국연구원.
오창명(1998), 『제주도 오름과 마을 이름』, 제주대학교출판부.
오창명(2004), 『제주도 마을 이름 연구』,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오창명(2007), 『제주도 마을 이름의 종합적 연구』, 제주대학교출판부.
오창명(2007), 『제주도 오름 이름의 종합적 연구』, 제주대학교출판부.
이영택(1986), 『한국의 지명』, 태평양.

2. 논문

- 김홍식(1985), “제주도지방의 지명어휘고(1)”, 『논문집』 20집, 제주대.
김홍식(1986), “제주도지방의 지명어휘고(2)”, 『논문집』 22집, 제주대.
남권희(1998), “東輿備考의 形態書誌”, 『東輿備考』, 경북대학교출판부.
남권희(2002), “<東輿備考>의 寺刹 기록 연구”, 『嶺南學』 2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남풍현(1981), 『借字表記法研究』, 단국대학교출판부.
남풍현(2003), “居伐牟羅와 耽毛羅”, 『탐라문화』 23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선석열(2002), “<東輿備考>의 歷史學的 考察”, 『嶺南學』 2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양보경(2001), “濟州 古地圖의 類型과 特徵”, 『문화역사지리』 제13권 제2호, 한국문화역사지리학회.
오상학(2000), “『耽羅巡歷圖』의 지도학적 가치와 의의”, 『耽羅巡歷圖研究論叢』, 濟州市耽羅巡歷圖研究會.
오창명(1997), “제주도 마을[洞里]과 산악 이름의 종합적 연구”, 『탐라문화』 18집,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오창명(2004), “『신증동국여지승람』의 제주 지명 연구”, 『제주도연구』 26집, 제주학회.
- 오창명(2006), “『耽羅圖』와 지명”, 『탐라문화』 28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 오창명(2006), “제주의 연대 이름 연구”, 『지명학』 12집, 한국지명학회.
- 오창명(2007), “제주의 봉수 이름 연구”, 『어문학』 제95집, 한국어문학회.
- 이상태(1996), “제주도 고지도 연구”, 『아세아문화연구』 제1집, 韓國 暎園大學校 아시아文化研究所·中國 中央民族大學 韓國文化研究所.
- 이상태(1998), “東輿備攷 解題”, 『東輿備攷』, 경북대학교출판부.
- 이상태(1999), “東輿備攷에 關한 研究”, 『實學思想研究(홍이섭 선생 25주기 기념호)』 10·11합집, 해안.
- 이상태(2002), “<東輿備攷>의 歷史地理學的 價値에 關한 研究”, 『嶺南學』 2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 이찬(1999), “十八世紀 耽羅地圖考”, 『地理學과 地理 敎育』 9집.
- 이한방(2002), “<東輿備攷>의 文化역사지리학적 高찰: <해동지도>·<대동여지도>와의 比較 分析”, 『嶺南學』 2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 정재영(2002), “<東輿備攷>의 지명 高찰”, 『嶺南學』 2호, 경북대학교 영남문화연구원.

Jeju place name study of DongYeo-BiGo(東輿備攷)

Oh, Chang-Myeong

This study is to have straightened up Jeju place name of a Jeju-do map part of DongYeo-BiGo(東輿備攷) assumed to be a map of the latter half for the 17th century. And it is what it counteracts the poison of the place name, and it analyzed with Korean linguistics.

I see DongYeo-BiGo(東輿備攷) have reflected contents of SinJeung-Dong Guk-YeoJi-SeungRam(新增東國輿地勝覽) according to a researcher. And I see it I cover regional geography contents after him, and have reflected.

I tried to compare contents with Jeju place name transcriptions and have a lot of the same things with transcriptions of SinJeung-DongGuk-YeoJi-Seung Ram(新增東國輿地勝覽) in case of place name transcriptions.

However, there are some place name transcriptions and contents if different.

DongYeo-BiGo(東輿備攷) is hard for an example finally by having reflected contents of SinJeung-DongGuk-YeoJi-SeungRam(新增東國輿地勝覽) wholly. Jeju place name of DongYeo-BiGo(東輿備攷) can confirm an around 170.

By the way, what I do the map that, in fact, I reflected a situation with an enemy at that time when I consider a place name transcriptions position and contents is hard. His Imperial Highness bases on regional geography contents till then and can do it a green map abstractly immediately.

DongYeo-BiGo(東輿備攷) looks with the map which I wrote in the latter half for the 17th century. But Jeju place name of DongYeo-BiGo(東輿備攷) is not to have reflected place name transcriptions at that time. I show that I reflected place name at least for the 16th century.

Transcribed place name is each due to transcribed with 火等旨 and 酉只浦, 蒲岳, 道衣灘浦 to this map with 鷄浦, 紫蒲岳, 敦義嶼浦, 不等之川 in I WonJin Tamnaji(耽羅志: 1653). Chinese character borrowing notation of the deviation Jeju unique place name where I see it, and Jeju-do map of Dong

YeoBiGo is shown in this map is not notation of the 17th century.

I assume by this map reflects transcriptions of SinJeung-DongGuk-YeoJi-SeungRam(新增東國輿地勝覽) of the 16th century very much, and having drawn it abstractly in the latter half for the 17th century. It is transcribed. with transcribe in Chinese characters with approximately 170 Jeju place name in DongYeo-BiGo(東輿備攷).

I am as follows if I read a case of a rear element of Jeju place name. '○○오름(ORom)' is transcribed with '○○岳'. '○○뫼(mountain)>○○메(mountain)' is transcribed with '○○山'. '○○개(boat landing)' is transcribed with '○○浦'. '○○내(rivers)' is transcribed with '○○川'. '○○못(pond)' is transcribed with '○○池'. '○○소(swamp)' is transcribed with '○○淵'.

A case of a rear element of place name is as follows. '굴론(twin)○○' is transcribed with '并○'. '물(water)○○> 물(water)○○' is transcribed with '水○'. '바구니(basket)○○' is transcribed with '把古○'.

오창명

제주대학교 국어상담소 연구원

주소: 제주도 건입동 성동1로 61 현대아파트 108동 701호

전화번호: 064-754-2712(연구실)

전자우편: ocmyl@hanmail.net

이 논문은	2007년 4월 30일	투고하여
	2007년 6월 20일까지	심사완료하여
	2007년 6월 30일	간행함